

이승은 | 연구원 (제 7266)

- 주요 뉴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섰다운 이틀째 민주당 기관 축소 방침 발표
 - 로잔·굴스비 연은 총재, 노동시장 안정 평가 속 금리 인하 전망은 상이
 - 미국, 9월 해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올해 누적 신규 고용은 16년래 최저치
 - ECB 빌레로이 위원, 유로화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촉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정부 섰다운 우려를 상쇄
 - 주가 강보합[+0.06%], 달러화 강세[+0.17%],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섰다운 우려에도 AI 기술주 강세로 강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랠리,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4일 연속 하락 마감 후 상승 전환
유로화 가치는 0.14% 하락, 엔화 가치는 0.1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고용지표 부진 예상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40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6.1원, 0.43% 상승). 한국 CDS 약보합

주요지표					주요지표				
		10/2일	10/1일	전일대비			10/2일	10/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15.4	6,711.2	+0.06%	국채금리 10y	미국	4.08%	4.1%	-2bp
	유럽	567.60	564.62	+0.53%		독일	2.7%	2.71%	-1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4.71%	4.7%	+1bp
	일본	44,937	44,551	+0.87%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3,549.2	3,455.8	+2.70%		중국	38bp	38bp	-0bp
	달러지수	97.9	97.7	+0.17%	위험지표	EMBI+	-	292	-
유로화	1.1715	1.1732	-0.14%	VIX		16.63	16.29	+2.09%	
환율	엔화	147.26	147.07	-0.13%		WTI유	60.48	61.78	-2.10%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495	488.3	+1.37%
	원화	1,400.0	1,403.2	+0.23%		금	3,856.6	3,865.7	-0.2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트럼프 대통령, 정부 섣다운 이틀째 민주당 기관 축소 방침 발표

-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며 정부 섣다운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기관들의 축소 방침을 발표. 트럼프는 섣다운을 '전례 없는 기회'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우세 주에 대한 자금 수십억 달러 차단과 정부 부처 대규모 감축 계획을 표명
-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정부 자금 조달을 두고 악의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비난. 한편,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섣다운 책임을 민주당(30%)보다 공화당(47%)에 돌리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섣다운 교착 상황으로 연방 법원 운영, 재향군인 지원, 교육 보조금, 슈퍼펀드(환경정화) 사업, 금요일 경제 데이터(고용지표) 발표에 차질 발생. 굴스비 연은 총재는 정부 섣다운으로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정책 당국자들은 10월 FOMC에서 연은 데이터 등의 대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
- 상원은 주말까지, 하원은 화요일까지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저소득층 보육 식품 바우처 중단 가능성도 언급되는 등 섣다운 장기화 시 파급영향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로건-굴스비 연은 총재, 노동시장 안정 평가 속 금리 인하 전망은 상이

-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는 현재 노동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두드러진다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관세로 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한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경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확보될 경우 금리가 '상당 폭' 인하될 수 있다고 강조. 또한 시카고 연은 분석을 인용하며 9월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을 가능성을 언급

■ 미국, 9월 해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올해 누적 신규 고용계획은 16년래 최저치

- 9월의 해고 계획 건수는 전월 대비 37% 감소한 5.4만 명이지만, 올해의 누적 신규 채용 계획은 20.5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 최저치(글로벌 인력 재배치 업체 Challenger, Gray & Christmas). 경제·무역정책 불확실성, 이민 단속, AI 확산 등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상황(Reuters)

■ ECB 빌레로이 위원, 유로화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촉구

- 빌레로이 위원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자산(safe assets)’을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 ▲초국가적 부채의 통합 ▲개별 국가 채권을 초국가적 채권으로 전환 ▲금융공학(증권화) 옵션 ▲기존 초국가적 부채의 신규 발행 또는 롤오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 영국, 기업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영란은행 조사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3.12월 이후 최고치인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 9월 임금 상승 기대치는 3.5%에서 3.8%로 증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 캐나다 카니 총리, 국방투자청 신설하여 재무장 가속화

- 카니 총리는 재무장의 일환으로 국방투자청을 신설하여 방위 조달을 신속화하고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 관세로 타격을 입은 산업 강화에 나설 계획. 미국이 전통적 안보 동맹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조업 관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군사력 회복을 경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

■ Fitch, 브라질 부채시장 리스크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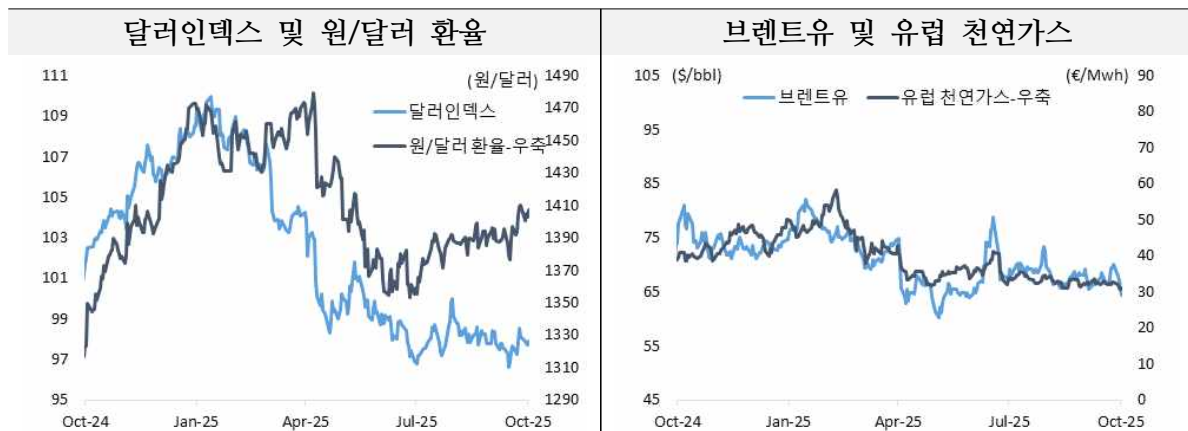
- Fitch는 브라질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신용시장 위축 가능성을 경고. 특히 국제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단기 차환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가장 취약할 가능성

주요 경제 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 지연, 제퍼슨 연준 이사 발언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7, E-mail selee@kcif.or.kr